13년 동안 이어온 나눔보살 원력

미소원, 11월 9일 창립 13주년 기념법회 봉행

본지 창립 30주년 발전기금 후원
생명나눔실천부산, 한국JTS 등
십시일반 후원금 · 기도비 모아
총 4095만원 후원금 전달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사단법인 미소원은 11월 9일 법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자비나눔 회향으로 창립 13주년을 기념했다. 미소원은 13년 동안 이어온 자비나눔 원력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사)미소원은 11월 9일 법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서 미소원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기금 500만원, 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에 500만원, 부산불교환경연대에 950만원, 한국JTS에 2145만원, 총 409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십시일반 모금과 환경참회기도 등 회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을 비롯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장태석 이사,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미소원 회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현대불교신문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정론지로서 불법홍포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미소원의 자비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후원금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불법홍포에 정진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소원에 오면 마치 보살을 양성하는 학교 같다고 느낀다. 무주상 보시를 통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후원을 해주시니 더욱더 힘을 얻어 환경운동에 정진하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로 시작해 2011년부터 사단법인 미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구치소 교정활동, 국립마산결핵병원 후원, 동구지역 취약계층 대상 반찬봉사, 아빠봉사단의 동구지역 취약계층 주거지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매해 명절 물품, 계절용품, 반찬, 청소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어사, '구법삼보일배'로 발원 정진

산문 매표소부터 삼보일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삼보일배를 통해 수행과 정진을 위한 발원의 장을 펼쳤다.

범어사는 11월 10일 경내 일원에서 '구법삼보일배'를 봉행했다.〈사진〉

구법삼보일배는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회원들의 발심을 위한 장으로 2016년부터 매년 봉행됐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중단되었으나 이번 해부터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재무국장 법귀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교육국장 각전 스님, 호법국장 정수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동참해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삼보일배 수행 정진의 장을 열었다. 아울러 호국을 기원하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확장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님들과 조영택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및 동문회원들은 범어사 입구 매표소 앞에서 삼보일배로 출발해 대웅전 앞 마당까지 2시간 동안 정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뉴질랜드 '남국선사' 참선수행도량 낙성

11월 10일, 대웅보전 낙성식 봉행



해외 뉴질랜드에 한국 참선 도량이 낙성해 모습을 드러냈다. 수선화 봉우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량 건축 양식과 뉴질랜드 한국 불자들이 30년 동안 준비한 결실로 의미가 깊다.

조계종 뉴질랜드 남국선사(주지 법일 스님)는 11월 10일 대웅보전에서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낙성식에는 남국선사 회주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과 주지 법일 스님, 멜리사 리 뉴질랜드 장관, 김홍기 주뉴질랜드 총영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남국선사 신도회는 이날 불사의 선봉장으로 이끌어 준 회주 수불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불사에 앞장 선 모든 불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삼매 법석 연다

12월 한 달간 대장정…설법전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봉행한 화엄산림법회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매년 봉행하는 화엄법석의 장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전국 최대 최장의 법석으로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30일 동안 이어진다. 화엄산림법회는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을 실현하듯 전국의 재가 불자들이 선사의 법문을 청하고 기도하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통도사 설법전에 영가 위패를 봉안해 영가들이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한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매주 천도재를 봉행하는 특별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도사 개산조 자장 율사는 화엄의 대가로 〈화엄경〉을 최초로 강설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자장 율사의 법연을 이어가는 법석의 장으로 의미가 크다.

입재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이며 입재법문은 前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법문하며 오후 법회는 화엄경 현담으로 강설을 시작한다. 이후 화엄산림법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봉행되며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12월 11일과 25일에는 월하 스님, 벽안 스님 추모다례가 열려 오후에만 법회가 진행된다. 회향은 12월 30일이며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 법문을 설한다.

통도사의 화엄산림 회향은 영단시식을 마친 후 영가 위패와 탑다라니를 소대로 이운하며 봉송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매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자비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턴 투워드 부산'으로 호국영웅 추모

11월 11일, 부산불교 동시 타종


부산불교계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의식에 동참하며 일제히 범종을 울렸다.

부산 불교계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의식에 동참하며 일제히 범종을 울렸다. 턴 투워드 부산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날로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호국불교를 강조하며 팔관회 이념을 현대에 구현하고 실천하고자 매년 의식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부산 전역 사찰은 추모시간에 맞춰 동시에 11번 타종하고 묵념하며 호국영웅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정오 스님은 "턴 투워드 부산은 전 세계의 호국영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의식"이라며 "후손들은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국의 귀중함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제안한 추모행사이다. 빈스 커트니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춰 동시에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매년 11월 11일 11시(한국 시간 기준)에 참전국은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 묵념하며 추모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각 사찰은 범종과 목탁, 죽비 등을 1분 동안 11타를 치고 경내 모든 사부대중은 UN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고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황령산 옥천암, 산신재·행복쌀 나눔잔치

11월 9일 옥천암 경내 산신재 봉행
자비의 쌀 1080kg 남구청에 전달



자비나눔실천도량 부산 황령산 옥천암(주지 대각 스님)이 11월 9일 경내서 '산신재 및 행복 쌀 나눔 잔치'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산신재 의식으로 시작해 자비의 쌀 전달, 축하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대회로 이어졌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쌀 10kg 108포를 남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각 스님은 "지난 10년간 십시일반 이웃돕기 행복쌀 나눔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눔을 행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비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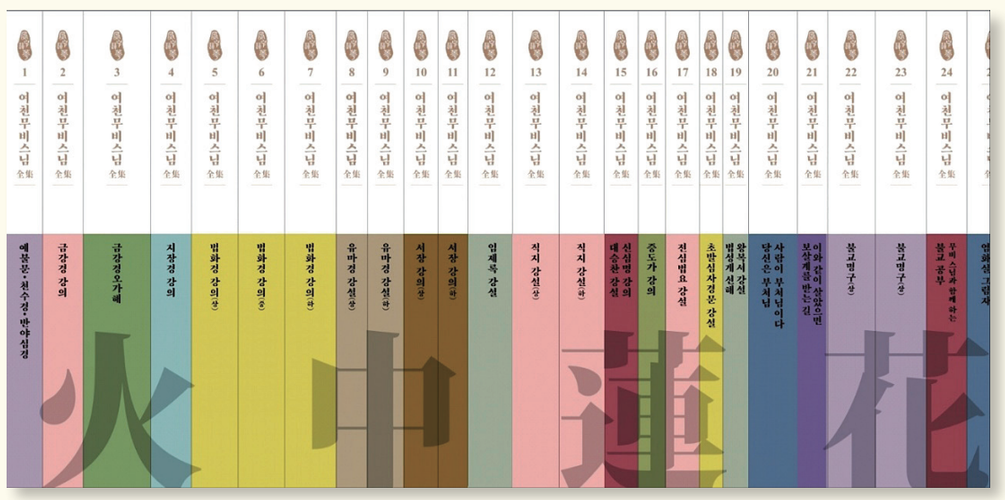
옥천암은 2014년부터 황령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영가들을 위해 산신재를 봉행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火中蓮華 무비큰스님 전집출간 봉정법회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명심회 주관으로 여천 무비큰스님 전집 화중연화 출간 봉정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꽃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화중연화' 전집으로 1권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시작으로
금강경, 법화경, 임제록강설,직지강설 ,증도가 초발심자경문,불교명구와 염화실 그림자 25권의 방대한 전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비 큰스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전집 봉행법회에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범어사 보제루
■ 문 의 : 051-508-3043
■ 주관·주최 :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염화실TV 0907